

최근 고용동향 및 전망

오 상 봉*

2015년 상반기에 33만 1천 명의 취업자가 증가하였다. 이 숫자를 지난해 상반기에 59만 7천 명이 증가한 것과 비교하면 올해의 노동시장의 상황이 그리 좋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올해 상반기의 취업자 수 증가가 지난해 상반기의 특별한 취업자 증가에 추가적으로 발생한 것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30만 명이 넘는 취업자 증가가 결코 나쁜 고용 상황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최근의 취업자 수 증감은 늘어나고 있는 50대 이상 인구의 취업자 증감에 의해서 결정된다. 지난해에는 50대 이상의 인구 증가에 비해서 취업자 증가가 급격하게 이루어지면서 전체 취업자가 크게 늘어났지만, 올해는 인구 증가 대비 취업자 증가가 이전 수준으로 돌아가면서 전체 취업자 증가도 30만 명대로 줄어들었다. 청년층을 보면, 특이하게 높았던 1990년대 초반 출생률로 인해 20대 초반의 인구는 늘어났지만, 전반적으로 인구는 줄어들고 있다. 그럼에도 재학생이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10대 후반과 20대 초반에서 인구 증감에 비해 고용이 늘어나면서 청년층의 취업자 수는 크게 늘었다. 30대 인구의 감소 추세는 지속되고 있고, 40대 인기도 최근 감소세로 전환되었다. 이제 이 인구집단에서 취업자 수가 증가하기를 기대하기는 어려우며, 오히려 인구 감소에 따라 취업자 수도 감소하고 있다. 다만, 결혼 연령이 늦춰지면서 30대 초반 여성의 고용률이 높아지면서 인구 감소에 따른 취업자 감소폭을 줄였다. 정부의 정책이 흐름을 바꾸지 못한다면, 60대 이상에서 70대 이상이 차지하는 비중이 늘어나면서 60대 이상의 인구 증가 대비 취업자 증가 정도는 점차 줄어들 수밖에 없을 것이며, 다른 연령대의 취업자 수도 인구 감소에 따라 줄어들 수밖에 없을 것이다. 만약 정부의 노력이 60대 이상 인구 중에서 노동시장에서 은퇴하기 전인 60대의 고용률을 높여 60대 이상의 고용률의 급격한 하락을 막고, 여성의 고용률을 높여 30~50대의 고용률을 높이고, 20대 후반과 그 이전 연령대의 고용률을 높인다면, 가까운 미래에 지속적인 취업자 수 증가를 유지할 수도 있을 것이다. 다만, 고용률을 높이고 취업자 수를 계속 늘리는 것이 정부 정책의 궁극적인 목표가 될 수 없으며, 국민 개개인 또는 가구의 후생을 증진하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 할

* 한국노동연구원 노동정책분석실장(soh@kli.re.kr)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고용률 또는 취업자 수 증가는 일자리 질의 향상과 같이 일어나야 할 것이다. 50대 이상 연령대와 20대 초반 이하 재학생의 취업 증가가 전체 취업자 증가의 대부분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늘어난 일자리의 질에 대해서는 의문부호를 붙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런데 늘어난 일자리의 종사상 지위를 보면 그렇게 부정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다. 늘어난 임금근로자의 3/4은 상용직으로 고용되었으며, 자영업자는 줄어들지만 고용주는 늘어나고 있다. 지난해 상반기에 비해 상용직 증가 폭이 크게 줄어들기는 하였지만 30만 명 이상의 증가세가 계속 유지되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임시직과 일용직의 증가가 이렇기는 하지만 취업자 증가가 이루어지는 연령대를 고려하면 어쩔 수 없는 측면도 있다. 자영업자 감소의 상당수가 농림어업에서 발생하기는 하였지만, 자영업자의 감소와 고용주의 증가의 결과로 전체 비임금근로자의 수가 줄어든 것을 부정적으로 평가할 일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종사상 지위를 기준으로 판단할 때, 올해 상반기에 아쉬운 점은 증가된 상용직 일자리의 대부분을 50대 이상 연령대가 차지하였다는 것이다. 50대 이상 연령대의 상용직 증가가 이렇다는 것이 아니라 50대 이상의 상용직 일자리의 질이 상대적으로 그리 좋지 못하다는 것이다.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취업자 증가는 주로 50대 이상 연령대에서 일어날 수밖에 없다. 더욱 더 많은 50대 이상 인구가 상용직 일자리에 취업하는 것에 진정으로 기뻐하기 위해서는 이 일자리가 진정으로 좋은 일자리로 바뀌어야 할 것이다. 이는 사업체의 규모에 따른 일자리 질의 격차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50대 이상이 취업하는 상용직 일자리는 주로 중소기업에서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올해 상반기에 일자리가 가장 많이 늘어난 업종은 지난해와 같이 제조업이다. 지난해 보다 훨씬 나빠진 제조업의 생산 및 수출 동향을 고려한다면 제조업 부문의 취업자 증가세는 이상하게 보일 것이다. 최근에 생산과 수출은 크게 감소하였으며, 특히 수출은 상반기에 5%나 감소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최근의 나쁜 제조업 지표는 유가 하락에 기인한 바가 크다. 제조업 가동률이 지난해에 비해 낮아지기는 하였지만 제조업 생산지수 증가율은 지난해와 크게 차이 나지는 않는다. 사실 더욱 이상한 것은 생산이 부진했던 3년 동안 제조업 취업자 증가세가 계속되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 3년 동안 제조업 생산지수 증가율은 0 주위에 계속 머물렀는데도 불구하고 2013년 후반부터 2014년 초반까지 몇 개월을 제외하고 취업자 수는 계속 10만 명 이상 증가하였다. 서비스업에서는 취업자 증가세가 약화되기는 하였지만 여전히 상당히 크게 증가하고 있다. 여기에는 음식숙박업과 사업지원서비스업에서의 취업자 증가의 영향이 매우 컸다. 증가세 약세에는 도소매업과 보건복지업에서의 취업자 증가폭 축소의 영향이 크다. 특히 메르스의 영향으로 6월에 보건업 취업자 증가폭은 크게 축소되었다. 금융보험업의 경우에는 매우 좋은

경영실적에도 불구하고 보험업 위주로 취업자 수가 계속 감소하고 있다. 이는 사업방식의 변화 때문인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에도 취업자 수가 옛날 수준으로 다시 회복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서비스업에서 늘어난 일자리의 다수가 상용직이지만 고용의 질이 좋지 않은 음식숙박업이나 사업지원서비스업 분야이다. 앞으로 금융보험업과 같이 전통적으로 일자리 질이 좋은 민간부문 일자리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본다면, 일자리 수 증가와 일자리 질을 동시에 개선하기 위해서는 공공행정이나 보건복지업 같은 업종에서 정부가 좋은 일자리를 늘리고 기존의 일자리를 개선하는 노력을 우선적으로 기울여야 할 것이다. 아울러 도소매업, 음식숙박업, 사업지원서비스업과 같은 저임금 업종의 일자리 질 개선을 위한 장기적인 노력이 유지되어야 할 것이다.

올해 상반기의 고용 증가는 지난해에 비해서는 미약해 보일 수 있지만 결코 나쁘지 않은 결과라고 평가한다. 물론 늘어난 일자리의 질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기는 힘들지만, 이것이 올해만의 현상이 아니기 때문에 질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로 일자리 수까지 부정적으로 보는 것은 안 될 것이다. 그렇다 하더라도 정부에서는 일자리 수를 늘리기 위한 정책을 수립할 때 일자리 질에 대한 고려를 함께 해야 할 것이며, 전통적으로 질이 나쁘다고 평가되는 일자리의 질을 높이기 위한 장기적인 노력을 함께 기울여야 할 것이다.

올해 하반기의 노동시장은 상반기의 연장선상에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 올해 들어서 2015년 GDP 성장률 전망이 지속적으로 하향조정되고 있지만, 추경 집행에 대한 기대 등으로 하반기가 여전히 상반기보다 특별히 나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제조업 부문에서 취업자 수 증가가 하반기에도 계속 유지될 것이라고 단언하기는 힘들지만, 증가 폭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판단할 만한 특별한 근거를 찾기는 어렵다. 서비스업에서는 메르스 사태가 종료되면서 보건업에서 취업자 수 증가가 과거 수준으로 회복될 가능성이 높으며, 공공부문의 취업자 감소세 약화의 가능성도 높다. 2년 연속으로 큰 취업자 수 감소를 기록하고 있는 농림어업이나 최근 취업자 증가 폭이 약간 축소되고 있는 건설업에서도 하반기에 더 부정적인 결과가 나올 것이라 볼 근거가 없다. 제조업에서 불확실성이 있기는 하지만 전반적으로 하반기에 취업자 수 증가 폭이 확대될 여지가 있다고 판단된다. 더구나 지난해 하반기에 취업자 증가가 상반기보다 상당히 낮았으므로, 기저효과까지 감안하면 올해 하반기에 취업자 수 증가는 상반기보다 높을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하반기 취업자 수 증가의 전망치는 34만 8천 명이며, 사실상 이것보다 조금 더 높을 가능성도 있다고 예상한다. **KLI**